

8강 진출 U-17 태극전사들 “형 만한 아우 되겠다”

조별리그 최종전 앙골라에 1-0 승
‘원톱’ 포항제철고 최민서 결승골
골키퍼 금호고 신송훈 슈퍼세이프

2승1패 조2위로 8강 진출
U-20 월드컵과 닮은꼴 행보

11일 오전 8시 사상 첫 4강 도전
오늘 일본-멕시코전 승자와 대결

‘리틀 태극전사’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10년 만에 8강 진출의 꿈을 이뤄냈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대표팀은 6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고이아니아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앙골라와 대회 16강전에서 전반 33분 터진 최민서(포항제철고)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골키퍼이자 팀의 주장인 신송훈(금호고)은 결정적인 실점위기를 막아내 승리를 지켜냈다.

한국은 이날 최민서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우고 왼쪽 날개에 김윤성(포항제철고)을, 오른쪽에 엄지성(금호고) 대신 정상빈(매탄고)을 배치했다.

중원은 백상훈(오산고)과 오재혁(포항제철고)이 맡은 가운데 윤석주(포항제철고)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다. 이태석(오산고)과 손호준(매탄고)이 좌우 풀백, 이한범(보인고)과 홍성욱(부경고)이 중앙 수비를 담당했다.

패하면 곧바로 탈락하는 ‘녹아웃 스테이지’를 맞아 리틀 태극전사들은 조별리그와 달리 신중한 탐색전을 펼치면서 경기를 풀어나갔다.

한국은 전반 5분 백상훈의 기습적인 중거리 슈트 이어 전반 19분 이태석의 패스를 받은 최민서의 슈팅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최민서는 상대 진영 왼쪽을 압박하며 앙골라 수비수의 패스 실수를 유도했고, 오재혁이 불을 잡아 정상빈에게 패스했다.

전반 33분 정상빈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시도한 오른발 슈트 앙골라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흘러나왔고, 골 지역 왼쪽에서 도사리던 최민서는 오른발 시저스킥으로 앙골라의 골문을 열었다.

한국은 후반 24분 지진 정상빈을 대신해 공격수 김윤학(포항제철고)을 투입하며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나섰다. 서두르지 않고 ‘정확한 한방’을 노린 한국은 후반 34분 역습 상태에서 김윤학의 침투 패스를 받은 최민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강하게 오른발 슈트를 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다.

광주 금호고 출신 선수의 활약도 빛났다. 골키퍼 신송훈은 후반 39분 골 지역 왼쪽에서 앙골라의 지니기 시도한 헤딩슈트를 몸을 날려 막아내는 ‘슈퍼세이프’를 펼쳤다. 그는 후반 추가 시간에도 중거리슈



5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에스타지우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FIFA U-17 월드컵' 대한민국 대 앙골라 16강전. 최민서가 선제골을 넣은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막는 등 선방쇼를 펼치며 골문을 지켰다.

대표팀의 행보는 올해 여름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한 ‘정정용호 신화’와 비슷한 모양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끌었던 U-20 대표팀은 ‘죽음의 조’로 손꼽힌 F조에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2승 1패를 거두면서 조 2

위 16강에 올랐다. U-17 대표팀 역시 ‘우승 후보’ 프랑스와 남미의 강호 칠레, 북중미에서 돌풍을 일으킨 아이티와 조별리그 C조에서 경쟁했고, 2승 1패의 성적표로 16강에 나섰다.

U-20 대표팀과 U-17 대표팀 모두 1승 1패의 성적으로 조별리그 최종전을 맞았고, 조별리그 탈락의 위기까지 맞았지만 두 팀 모두 최종전 승리로 조

2위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닭은 꼬’ 행보를 보였다. 16강 성적도 똑같았다. 정정용호는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속죄’ 일부를 1-0으로 물리치고 8강 진출을 확정했다. U-17 대표팀도 앙골라와 16강전에서 원톱 스트라이커 최민서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따냈다. U-17 대표팀은 녹아웃 스테이지에서 부담스러운 한일전을 치를 공산이 크다. 조별리

그 D조에서 무실점으로 2승 1무의 성적표를 받아 조 1위로 16강에 오른 일본은 F조 3위로 16강에 턱걸이한 멕시코(1승 1무 1패)와 만난다.

한편 한국은 오는 11일 오전 8시 비토리아의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일본-멕시코의 16강전(7일) 승자와 8강전을 펼쳐 사상 첫 4강 진출에 도전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레드카드 철회 ... 안정 찾아가는 손흥민

3경기 출전정지 징계 취소
10일 셰필드 전 출전 가능

퇴장 명령을 받고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던 손흥민(27·토트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6일 손흥민에게 주어진 레드카드를 철회하고 3경기 출전정지 징계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토트넘 측은 항소 하루만의 일이다.

토트넘은 지난 4일 오전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이날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3분 안드레 고메스(에버턴)에게 백데칼을 시도했다. 고메스는 태클에 걸려 넘어지다 세르주 오리에(토트넘)와 부딪혀 오른쪽 발목을 크게 다쳤다. 골질 탈구 진단을 받은 고메스는 다음날 수술대에 올라 6일 퇴원했다.

이 사건으로 주심은 손흥민에게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EPL 측은 “태클이 선수의 안전에 위협을 줬다”는 퇴장 판정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토트넘 측은 ‘손흥민 살리기’에 나섰다. 5일 스카이스포츠 등 영국 매체는 “손흥민이 레드카드를 받은 데 대해 토트넘 구단이 잉글랜드축구협회에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 대변인은 6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축구협회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가 손흥민의 부당한 퇴장에 대한 주장을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들과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정해 손흥민은 다음 3개의 토트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손흥민은 오는 10일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

움에서 열리는 셰필드와 경기를 비롯해 웨스트햄 يونايتد, 본머스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바이오·박준혁 ‘베스트 11’

K리그2 35라운드

광주FC의 ‘홈 무패 우승’을 저지한 전남드래곤즈의 바이오와 박준혁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 2019 K리그2 35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전남의 골잡이 바이오와 골키퍼 박준혁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는 지난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시즌 마지막 원정경기에서 전반 7분 만에 정재희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남은 전반 33분 두현석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0분 나온 김건용의 골을 지키면서 2-1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1무 2패로 광주에 뒤져있던 전남은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설욕전에 성공하면서 광주의



바이오

박준혁

‘홈 무패 우승’을 막아냈다. 광주의 거센 공세를 1실점으로 막으며 승리를 지켜낸 골키퍼 박준혁도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마지막 원정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전남은 오는 9일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안산그리너스와 시즌 폐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소년 선수들과 멋진 하루

다음달 3일 서울서 ‘빛을 나누는 날’

프로야구 10개 구단 선수들이 재능 기부 행사를 열고 유소년 선수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2019 유소년야구클리닉 ‘빛을 나누는 날’이 12월 3일 서울 KBS 아레나에서 열린다. 매년 12월 열리는 ‘빛을 나누는 날’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며 올해도 5회째를 맞는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1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초등학교(3-5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가 신청 방법은 선수협 네이버 포스트나 ㈜에이치아이씨 홈페이지(www.hicompany.co.kr) 및 블로그(https://blog.naver.com/hicompany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